교수 공채 부적절한 담합 '철퇴'

■전남대 교수 5명 직위해제 초강수 배경은

도덕적 책무 강조…이달중 징계위 회부

최근 전남대가 교수 채용과정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부적절한 담합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은 교수 5명에 대해 '직위해제' '징계위 회부'라는 초강수를 둬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비교적 높은 사회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교수의 도덕적 책무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으로 평가된다.

◇교수 채용과정에서 무슨 일 있었나=전남대 정외과는 지난해 7월 '지역 연구' 분야의 '재외한인연구' 전공 교수를 공채했다. 최초 공모 참가자 7명 중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이들은 3명. 그러나 이들 3명은 2단계 두 번째 심사인 공개세미나에서 과락에 해당하는 3점 이하를 받았다. 세미나 심사에서 심사위원 과반수에게 3점 이하를 받을 경우 무조건 불합격처리 된다.

탈락자들은 해당 심사위원인 P, K, O 교수가 담합한 결과라며 대학 본부에 이의를 제기했으며 본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탈락자들은 타 대학 출신인 3명의 심사위원이 전남대 출신 응모자 3명에게 모두 과락점수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도 이들 세 교수가 3명 모두에게 과락 점수를 주었고, 과락 사유로 '외국어 능력, 도덕성 등'이라고 똑 같이 쓴 점에 비춰 볼 때 담합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세 교수의 담합을 놓고 학교 내에서는 타대학 출신인 이들이 전남대 출신 응모자들을 탈락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여수캠퍼스 공대는 지난해 7월 공대 내 해양실험실 전담 교수를 공개 모집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응모자가 제출한 제1저자가 아닌 논문을 이번에 직위해제당한 J, L 두 교수가 응모자의 연구 실적으로 인정했다. 학교 측은 두 교수가 논문을 인정한 과정에 사전 담합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어떻게되나=전남대는 교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총 9명의 교수들이 참여하는 징계위원회를 이달 중 열어 이들 교수 5명에 대한 징계를 확정할 방침이다. 징계위원회에서는 정직·해임·파면 등 중징계를 결정하게 된다.

전남대의 강경 방침은 교수 채용과정에서 심사를 맡은 교수들이 관행적으로 사전에 정보를 공유하고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동을 보여온 데 대한 철퇴를 내린 것으로, 징계 수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 교수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더 투명한 채용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환영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관행이란 점에 비추어 '너무 심한 처사였다'는 반응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교 측의 의지는 확고하다. 전남대 대학본부 관계자는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행동을 한 교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강력 대응하겠다는 학교 측의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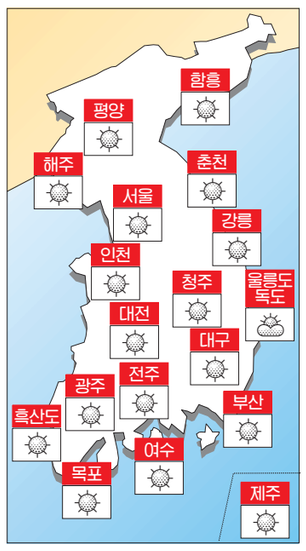
기지개 켜는 개구리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며 맑겠다.

3월 5일 (음 1월 28일) ◇전국날씨

날씨

광 주	맑음	-2~10℃
목 포	맑음	-1~10℃
여 수	맑음	1~10℃
완 도	맑음	-1~10℃
구 례	맑음	-5~9℃
해 남	맑음	-5~10℃
장 흥	맑음	-5~11℃
고 흥	맑음	-3~11℃
순 천	맑음	-6~11℃
영 광	맑음	-4~9℃
진 도	맑음	-3~10℃
전 주	맑음	-4~10℃
남 원	맑음	-8~11℃
흑산도	맑음	2~8℃



서해남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1.0~2.0m
먼바다=서~북서풍 파고 1.0~2.5m
남해서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1.0~2.0m
먼바다=서~북서풍 파고 1.0~2.5m

목 포 밀물 〈 00:10 13:03 썰물 〈 05:50 18:33
여 수 밀물 〈 08:11 20:06 썰물 〈 01:29 14:14

▲해뜸 06:57 ▲해짐 18:31 ▲달뜸 05:26 ▲달짐 15:55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6(목)	7(금)	8(토)	9(일)	10(월)	11(화)
날 씨						
최저/최고	-1/3	0/13	0/13	2/13	3/12	2/13

전남경찰청장에 박영헌씨

치안정감·치안감 28명 인사

정부는 4일 전남지방경찰청장에 박영헌 경찰청 수사국장을 내정하는 등 치안감 24명과 치안정감 4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김남성 현 전남경찰청장은 경찰청 외사국장으로 전보 발령됐으며, 최병민 광주지방경찰청장은 유임됐다.

정부는 또 이날 치안정감인 서울경찰청장에 한진희 경찰청 경무기획국장을, 경찰청 차장에 김석기 경찰종합학교장을 승진 내정했다. 경찰대학장에는 임재식 제주경찰청장이, 경기경찰청장에는 김도식 경남경찰청장이 각각 승진 내정됐다.

이날 인사에서 제외된 정봉채 경찰대학장과 강희락 경찰청 차장은 해양경찰청장에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치안감 중에는 경찰청 보안국장에 이동선 경찰청 대변인이, 대통령실 치안비서관에는 함평 출신인 모강인 서울경찰청 정보관리부장이, 서울경찰청 차장에는 김수정 대통령실 경호처 경찰관리관이, 강원경찰청장에 남형수 경찰청 감사관이, 경기경찰청 2차장에 박진현 경찰대 교수부장이 승진 내정됐다.

정부는 5일이나 6일께 이명박 대통령의 정식 서명 절차를 거쳐 공식 발령을 낼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옛 경영진 복귀 반대" 조선대는 4일 오전 치과대학 대강당에서 '학교법인 조선대 정상화 및 전 경영진 복귀저지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 참석한 400여명의 교직원들이 '전 경영진의 이사회 참여를 절대 배제한다'고 결의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학분쟁조정위는 현재 조선대의 법인정상화 및 정이사 선임과 관련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수능 국사 필수' 철회 가능성

과목 축소 따라 서울 7개 사립대 재논의

서울대에 이어 고려대, 서강대, 연세대 등 서울 7개 사립대가 수능 국사 과목을 필수로 지정해 입시에 반영하려던 방침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새 정부의 대입 자율화 방침에 따라 2012학년도부터 수능 과목이 5개로 축소되고 특히 탐구영역에서 최대 두 과목만 선택할 수 있어 방향 전환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김영수 서강대 입학처장은 4일 "지난해 서울 7개 사립대는 2010학년도부터 수능 국사과목을 필수로 지정한다는 데 합의했지만 새 정부의 대입 정책 변화로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5월 고려대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등 서울 7개 사립대는 2010학년도부터 수능 국사과목을 필수로 지정하기로 합의하고 대학별 입학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려 확정짓기로 했다.

그러나 새 정부의 3단계 대입 자율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기존 방침에 대한 변화가 불가피해 서울 7개 사립대는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광양 출신…고졸 약점 극복한 정보통

박영헌 전남경찰청장은

광양 출신인 신임 박영헌(54) 전남지방경찰청장은 철도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1980년 간부 후보 28기로 경찰에 투신한 이색 경력을 갖고 있다.

1997년 '경찰의 꽃'인 총경으로 승진한 박 청장은 ▲전남청 교통과장 ▲광주 동부·북부·광산·목포경찰서장 ▲전남청 정보과장을 거쳤다.

그는 고졸 출신이라는 약점을 딛고 2004년 경무관으로 승진, 인천경찰청 차장과 경찰청 정보통신관리관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11월 치안감으로 승진해 경찰의 요직인 경찰청 수사국장을 맡았다.

신임 박 청장은 정보통으로 기획력이 뛰어나고 책임감과 업무 추진력이 탁월한 간부로 평가받고 있으며, 온화한 성품으로 조직을 이끌어 선·후배 경찰에게 신망이 두텁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봉사 활동 부풀리기 안통한다

광주교육청 확인증 편법 발급 기관 블랙리스트 작성

하지 않은 봉사활동에 대해 확인증을 끊어주거나, 봉사활동 시간을 부풀리고, 학생 대신 학부모에게 확인증을 발급해주는 일이 앞으로는 불가능하게 됐다.

광주시교육청은 4일 허위나 조작에 의해 봉사활동 확인증을 발급한 기관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공시하고 이 기관들의 봉사활동 확인증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이들 기관들의 명단을 각급 학교와 학생들에게 알리기로 했다.

학생 봉사활동은 그동안 실효성에 대해 논란을 빚어왔다. 국회 교육사회위 안민석(통합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중·고교생 1천37명과 교사 26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학생의 51.3%가 봉사활동 실적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작성했다고 답했다. 교사의 85.3%는 학생들의 확인증에 허위나 조작 의심이 간다고 답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학생봉사활동 운영 지침'을 정해 "편법 발급이 적발된 기관을 상급기관에 신고하는 것은 물론, 봉사활동 인정기관에서 제외하고 학교와 학생에게도 공개해 학생들의 봉사활동 참여를 제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또 교감, 교무부장, 연구부장, 생활지도부장,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봉사활동운영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하고 홈페이지 내 '학생봉사활동정보안내센터' 운영을 통해 기관들의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봉사활동의 질적 평가제를 도입해 봉사활동 확인서의 평가란에 해당기관 지도자의 평가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고 상급학교 진학에 대비해 학교생활 기록부에도 봉사활동의 질적 평가를 기술하도록 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시민군 화가' 이강하씨 별세

서양화가 이강하씨가 4일 오후 5시 광주시 동구 학동 자택에서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56세.

이씨는 지난 1981년 대한민국 미술전람회에서 입선한 이후 본격적인 활동을 해오다 지난 2003년 직장암으로 건강이 악화되면서 작품 활동을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등산을 배경으로 여인의 아름다운 누드를 형상화한 대표작 '천·지·인'은 남도의 토속적인 색감과 극사실주의적인 묘사가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선대 사범대학 미술교육과를 졸업한 그는 지난 1985년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광주·서울·부산 등지에서 10여 차례 개인전을 열었고, 목우회 회원으로 활동했다. 5·18 광주민중항쟁 당시 시민군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빈소는 광주 그린장례식장. 발인은 6일 오전 10시, 장지는 국립 5·18묘지. 유족으로는 부인 이정덕(56)씨, 장남 지흥, 장녀 이선씨 등 1남1녀. 문의 062-250-4455.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